

碩·博士學位의 종류와 명칭

李 星 鎬

(延世大 教育學科)

1. 序 言

우리나라 大學院 敎育의 質的 向上과 發展을 모색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學位의 種類와 名稱에 관한 문제이다. 학위의 종류를 그 類型 또는 水準別로 再定立하고, 더불어 학위의 名稱을 전면 再檢討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팽배되고 있다. 本稿는 그러한 필요성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앞으로 韓國의 大學院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와 명칭을 어떻게 고쳐 나감이 좋을지에 대한 擘畧을 적는 데 목적이 있다.

학위의 종류와 명칭에 대한 문제의식이 계속 일고 있는 까닭은 크게 나누어 세 가지 인식에서 비롯하고 있다 하겠다. 첫째는 學術社會에서의 신분과 명예의 대표적인 표상이 되어온 학위가 점점 그 가치를 상실하고 학위가 지녔던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기인한다. 이는 특히 '60년대 이후 급속도로 팽창하기 시작한 우리나라 大學院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그 곳에서 수여되는 석·박사학위의 수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는 점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文敎統計年報에 따르면 '85 학년

도까지 우리나라 大學院에서 수여된 박사학위 취득자는 모두 13,829 명에 달한다. '85 학년도 1년 동안에만도 1,645 명에게 박사학위가 수여되었다.¹⁾ 이와 같은 학위 수여의 양적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둘째로 국내 대학원에서 학위 수여가 활발해짐과 더불어 국내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의 國際的 公信力을 제고할 필요성이 절감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學術社會의 國際化가 사회 어느 부면의 경우보다도 먼저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내 대학원에서 수여되는 석·박사학위의 명칭상의 표기가 國際化되어야만 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다. 즉 學位의 國際的 比較性 내지는 對等性을 확보해야만 할 필요가 인식되고 있다. 세째는 현재 우리나라 大學院에서 수여되는 석·박사학위의 종류나 그 명칭이 그것이 본질적으로 함축시켜 나타내 주어야만 하는 학위 취득 課程의 內容과 方法을 제대로 표현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위의 종류와 명칭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학사, 석사, 박사학위의 명칭상의 종류가 무려 1,700여 종에 가까와 오히려 학위에 대한 명칭상의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그러나 우

1) 중앙교육평가원, 문교통계연보, (서울: 문교부, 1986), 622~623면.

리나라의 경우는 그 반대로 학위의 종류와 명칭이 너무 단순화되어 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현재 敎育法施行令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碩士學位는 27종(개정 '73.7.14), 博士學位는 19종(개정 '76.2.23)으로 되어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大學院에 개설되어 있는 專攻學科의 종류가 무려 278개인 점과²⁾ 비교해 볼 때도 그 명칭상의 학위 종류가 어느 정도 단순화되어 있는가는 쉽게 짐작될 수 있다.

大學院의 學位制度는 유럽과 美國에서 발전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大學院에서의 석·박사학위 과정과 학위 제도는 美國의 그것과 흡사하다. 그러나 美國의 學位制度는 본질적으로 多樣性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그것을 劃一的으로 일괄 해석하기는 어렵다. 同一名稱의 학위라 하더라도 그것을 수여하는 大學院에 따라 그 質과 內容은 크게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大學院의 學位를 美國의 그것들과 일괄해서 견주어 말하기란 지극히 위험스럽다. 이러한 뜻에서 本稿에서는 우선 學位制度의 歷史的 出發과 美國 大學院에서의 學位의 種類와 名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 大學院에서의 학위의 종류와 명칭의 개선 방향을 짚어 보고자 한다.

2. 學位制度의 歷史的 背景

碩士(master)와 博士(doctor)라는 학위 칭호는 본래 12세기 유럽 대학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H. Rashdall의 분석에 따르면,³⁾ 당시에는 석사와 박사학위가 같은 수준의 학위였으며 두 가지가 모두 學生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敎授資格을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석사와 박사는 모두 敎授(professor)라는 의미의 同義語였다. 다만 석사학위는 주로 人文科學 분야에서 주어지는 학위, 박사학위는 주로 神學, 法學, 醫學 등 전문 분야에서 주어지는 학위였다.

이러한 碩·博士學位는 오늘날의 경우처럼 그 水準을 달리하여 구별되기 시작한 것은 英國과 獨逸의 대학들에 의해서이다. 초기의 영국 대학에서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최초로 획득하는 正規學位(earned degree)를 學士(bachelor)라 칭하고, 그 다음에 얻게되는 보다 높은 수준의 학위를 碩士(master)라 칭하였다. 곧 석사학위가 최초의 정규 학위였으며, 박사학위는 대체로 명예학위(honorary degree)로만 수여되었다. 박사학위가 정규 학위로 발전된 것은 독일 대학에서이다. 초기의 독일 대학에는 대체로 4개 學部가 있었는데 法學, 神學, 醫學, 哲學部가 그것이다. 각 部別로 박사학위가 수여된 바 박사학위 종류는 법학박사, 신학박사, 의학박사, 철학박사의 네 가지인 셈이었다. 오늘날 흔히 말하는 철학박사(Ph.D. : Doctor of Philosophy)는 바로 이 당시 독일 대학에서의 哲學部를 통하여 수여했던 철학박사 학위 명칭에 그 起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美國 大學에서 학문의 영역에 구별됨이 없이 모든 분야에서 哲學博士學位를 수여하는 까닭도 당시 독일 大學에서는 法·神·醫學部 이외의 모든 전공 분야는 哲學部에 소속되어 哲學博士學位를 받았던 것에서부터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美國 大學院의 경우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正規學位로서의 碩士學位는 Michigan 大學에서 1853년에 文藝碩士(Master of Arts : M.A.,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文學碩士가 이에 준함) 학위 과정을 설치하고, 1859년에 최초로 석사학위를 수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때 석사학위의 요건은 일정한 冊의 敎과 과정 이수, 論文의 作成, 敎수들 앞에서의 發表와 試驗 등의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었다. 한편 Ph.D.의 경우는 1861년에 Yale 大學에서 처음으로 3명의 학생에게 Ph.D.를 수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흔히 美國 大學院 敎育의 역사적 기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Johns Hopkins 大學에서 Ph.D.를 수여하기

2) 上掲書, 610~620面に 제시된 자료를 筆者가 계산하였음.

3) Walter C. Bells, *Degrees in Higher Education* (New York: The Center for Applied Research in Education, Inc., 1963), p.3.에서 재인용(이하 本稿에서의 美國 大學院의 學位制度에 관한 많은 統計值 및 歷史的 記錄 내용은 本篇를 주로 參考하였음을 밝히둔다).

시작한 것은 Yale 보다는 17년이 늦은 1878년 부터의 일이다. 1860~61학년도 Yale 大學 요람에 보면, Ph.D. 학위의 수여 요건은 다섯 가지였다. 즉 ① 2년간에 걸친 교과 과정의 이수 ② 1년간의 全時研究(residence) ③ 라틴어와 희랍어 어학 시험 또는 이에 대체될 수 있다고 교수가 지정하는 특정 교과목의 시험 ④ 綜合試驗 ⑤ 獨創的 論文의 作成이었다. 이러한 석·박사학위의 엄격한 요건은 그 후 지금까지도 미국 大學院의 하나의 전통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물론 어학 시험의 경우는 그것이 第2外國語 또는 統計學과 같은 道具科目으로 바뀌기는 하였다.

위와 같은 Ph.D.라는 學術研究 위주의 학위제도는 독일 大學院의 哲學部에서 수여하던 Ph.D. 제도를 이식시킨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독일 大學院에서 수여하였던 法·神·醫學部의 박사학위는 미국의 경우, 領域專門學位 또는 職業專門學位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특히 그것은 醫學分野에서 크게 발전하기 시작한 바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1768년에 의학박사(Doctor of Medicine : M.D.) 학위를 College & Academy of Philadelphia(후에 Pennsylvania 大學으로 병합됨)에서 수여하였다. 이때의 M.D.는 학사학위를 받은 지 1년 후에 시험을 보고 박사학위를 주는 것이었다. 의학 분야에서의 전문학위는 그 후 치의학, 수의학, 약학 분야 등으로 확산되었다. 敎育學分野에서는 '21년에 처음으로 Harvard 大學에서 敎育學博士(Doctor of Education : Ed. D.) 학위를 수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Ed.D. 제도는 곧이어 미국의 여러 主要 大學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바 예컨대 California 大學, Stanford 大學, Columbia 大學, Boston 大學, George Washington 大學 등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領域專門學位로서의 Ed.D.는 기존의 醫學, 神學, 法學 분야에서 일정한 기간의 敎科目 追加履修와 國家에서 시행하는 專門分野의 資格(예컨대 醫師資格)을 취득하면 의례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論文의 作成도 없이 수여하였던 전문학위와는 그 성격을 크게 달리하고 출발하였다. 이 점에 관해서는 뒤에 가서 좀더 상세히 논의하기로 하겠다. Ph.D.라는 학술연구학위에

대응하는 영역전문학위는 미국의 경우 '60년대 이후에 더욱 널리 확산되었다. 특히 高度産業社會化의 물결 속에서 계속적으로 상승되는 專門分野別 高級人力의 수요 그리고 그 수요의 局地化, 細分化를 영역전문학위 소지 인력을 量産하도록 하는 유인제가 된 것이다. 이제 이러한 美國 大學院의 學位制度 특히 그 種類와 名稱上的의 문제만을 따로 떼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3. 美國 大學院의 學位種類와 名稱

미국 大學院에서 수여하는 學位는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名譽學位(honorary degree)와 正規學位(earned degree)로 二分된다. 명예학위는 학위를 수여하고자 하는 측에서 이미 설정된 일정한 水準에 비추어 학위를 받을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常例이다. 반면 정규학위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일정한 기준이나 수준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며 또 그것을 입증해야만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학위이다.

명예학위는 본래 英國에서 출발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1692년에 Harvard 大學에서 처음으로 이 大學의 6대 총장이었던 I. Mather에게 명예 Doctor of Sacred Theology(S.T.D.) 학위를 수여함으로써 출발되었다. 명예석사학위는 역시 Harvard 大學에서 1753년에 B. Franklin에게 명예문예석사(M.A.)를 수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Ph.D.가 명예학위로 수여된 것은 1852년 Bucknell 大學에서부터이다. 이는 Ph.D.가 정규학위로 수여되었던 1861년보다 먼저의 일이다. 그러나 Ph.D.가 명예학위로 수여되는 일은 그리 오래 계속되지 못하였다. 正規學位로서의 Ph.D.의 고유한 명예와 가치 그리고 質을 보장해야 한다는 거센 비판 때문에 많은 大學院에서 명예 Ph.D.에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또한 명예석사학위도 '60년대 초까지는 그래도 몇몇 대학에서 계속 수여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없어졌고 명예박사학위제만 실시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大學院에서 수여되고 있는 명예박사학위 명칭의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일곱 가지가 있다. 즉 ① L.D.(Doctor of Laws) ②

L.H.D. (Doctor of Humane Letters) ③ D.D. (Doctor of Divinity) ④ Sc.D. (Doctor of Science) ⑤ Lit. D. (Doctor of Literature) ⑥ D. Mus. (Doctor of Music) ⑦ Lett. D. (Doctor of Letters)이다.

명예학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은 없어진 그것에 준하는 유사한學位들도 있었다. 예컨대, 유럽의 大學들에서 널리 퍼져 있었고 미국의 경우는 Yale 大學과 같은 곳에서 수여했던 職權學位(Ex-Officio degree 또는 Privatum degree라고 불리움)와 같은 것이다. 이는 Yale 大學의 경우를 예로 해서 보면, 大學의 法人理事會의 이사가 되거나 또는 석·박사학위가 없는 正教授에게 수여하였던 碩士學位 수준의 非正規學位였다. 그 외에도 他大學院에서 이미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자기네 大學의 동일한 수준의學位課程에 다시 入學하면 그냥 교과 과정만 이수한 다음에 同一한 수준의學位를 수여하였던 'ad eundem degree'라는 非正規學位도 '30년대까지 성행했었다.

大學院學位制度的 證核이 되는 것은 正規學位이다. 미국 大學院에서 수여되는 正規學位는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學術研究學位(academic research type degree)와 領域專門 또는 職業專門學位(professional type degree)로 大別된다. 전자의 경우가 專門의 學術研究人을 양성하는데 초점이 있다면 후자의 경우는 전문적 직업분야에서의 고도의 자질과 조예를 갖춘 專門人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따라서 학술연구학위는 학술 연구 능력을 가늠하여 수여되지만 영역전문학위는 전문적 식견과 그 응용 능력을 가늠하여 수여된다.

碩士學位의 경우 學術研究學位로는 M. A. (Master of Arts)와 M. S. (Master of Science)가 있다. 領域專門學位로는 M. B. 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M. F. A. (Master of Fine Arts), M. M. (Master of Music), M. S. W. (Master of Social Work), M. P. A.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M. Ed. (Master of Education) 등이 대표적인 예들이다. 물론 그 외에도 수없이 다양한 領域專門 碩士學位들이 있다.

博士學位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學術研究學位는 Ph.D. (Doctor of Philosophy)이다. 이 때 哲學(Philosophy)이란 학문 분야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최고의 知性, 가장 수준 높은 研究人 또는 學術人으로서의 資質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西歐 學問世界에서 古來로 이어져 내려온 學問領域間 위계상의 최고 위치는 哲學이었다는 믿음에서 最高의 知性을 나타내려는 뜻으로 채택된 용어라고도 하겠다. 그러나 보편적인 日常的使用에서는學位의 第3水準(third-level degree)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쓰인다. 즉 學士, 碩士, 博士로 이어지는 학위수준에서 제3수준의 학위를 지칭하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이다. 예컨대, 美聯邦政府의 National Research Council에서는 D.D.S., D.V.M., J.D.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박사학위를 통칭하여 표현하는 의미로 Ph.D.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⁴⁾

Ph.D. 이외의 모든 다른 博士學位는 領域專門學位로 흔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Walter C. Eells는⁵⁾ 美國 大學院의 正規 博士學位를 學術研究學位와 領域專門學位로 구분하면서 학술연구학위의 범주 속에 Ed.D., D.B.A., Eng.D. (Doctor of Engineering), Th.D. (Doctor of Theology)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영역전문학위로는 M.D., D.D.S. (Doctor of Dental Surgery), D.V.M. (Doctor of Veterinary Medicine), D.P.H. (Doctor of Pharmacy), D.M.D. (Doctor of Dental Medicine) 등을 들고 있다. 美國 聯邦政府 統計 처리에서 보면 매년 국립교육통계센타가 발행하는 *The Condition of Education*이라는 통계 보고서에서 학술연구학위로 Ph.D., Ed.D., D.B.A., Eng.D., D.M.A., D.E.S. 등을 포함하고 영역전문학위로는 M.D., D.D.S., J.D.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4) National Research Council, *A Century of Doctorate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978).

5) Walter C. Eells, *Op. Cit.*, pp. 19~39.

Ph.D. 이외의 다른 博士學位가 學術研究學位나 아니냐 하는 논쟁은 美國 大學院의 경우 그렇게 큰 가치 있는 쟁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美國 大學院의 학위는 그야말로 千差萬別하기 때문이다. 같은 Ph.D.라고 해도 또 같은 Ed.D.라고 해도 그 內容과 課程의 質的인 격차는 大學院間에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金蘭洙·金萬圭도 美國 大學院 학위제도를 분석하면서 미국 大學院의 경우, 學術研究學位로서의 Ph.D.와 그 외의 領域 專門學位 사이의 本質的 區分이란 매우 어렵다고 결론짓고 있다.⁶⁾ 美國 大學의 地域別 一般 業績評定機構의 대표적 기구의 하나인 North Central Association의 Commission on Institutes of Higher Education에서 공표한 上級學位課程 開設 指針에 따르면 正規 博士學位는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즉 ① 哲學博士(Ph.D.) ② 文藝博士(D.A.) ③ 專門學位들(예컨대 Ed.D., D.B.A. 등)이다. 그런데 同 보고서에 따르면,⁷⁾ Ph.D.와 Ed.D.는 본질적으로 質的인 水準에서의 差異는 없다. 다만 그 強調點이 다소 다를 뿐이라고 한다. 예컨대 Ph.D.나 Ed.D. 모두 거의 같은 量의 學點數를 특정 전문연구영역에서 요구하고 있다. 다만 Ed.D.의 경우는 그 學點數를 세분된 특정 영역으로 分配하여 이수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Ph.D.가 특정 영역에서 보다 깊이 있는 중점 연구를 한다면, Ed.D.는 특정 영역의 橫적인 폭을 넓혀 연구한다. Ph.D.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에 강조점을 두지만, Ed.D.는 알려진 원리를 현장의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데 강조점을 둔다. 그리고 Ph.D.와 Ed.D.의 이러한 차이는 Ph.D.와 D.B.A., Ph.D.와 D.P.A.간의 차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Harvard 大學의 경우, Ed.D.의 학위 요건은 Ph.D.와 다를 바가 없다. 대부분의 領域 專門學位가 學術研究學位인 Ph.D.와 갖는 유일한 차이는 外國語 試驗의 부과 여부인 바, 領域 專門學位에서는 그 대신 數學이나 統計學 등을 부과시키고 있

다. 그러나 이제는 상당수의 大學院에서 Ph.D.의 경우에도 外國語 대신에 統計學 등을 대체 과목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다. Harvard 大學 Ed.D.의 경우에는 外國語나 統計學 중에서 擇一하도록 하고 있다. 學位論文은 반드시 實驗의 研究로서 教育의 제반 문제점, 발전 등에 대한 비판적인 分析을 포함해야 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1년간의 全時研究(residence), 綜合 試驗, 論文口頭試驗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Ph.D.에서 요구하는 기본 요건들과 똑같은 수준이다. 오히려 두 가지 요건이 Ph.D.의 경우보다 더 붙는다. 하나는 성공적인 '가르치는 경험'을 논문 작성 제출 이전에 1년 이상 갖추어야 하며, 다른 하나는 정해진 기간의 修習課程(internship)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Harvard 大學과 같은 엄격한 요건을 Ed.D.에 있어서 요구하는 大學院들은 Harvard 이외에도 많다. Texas 大學의 Ed.D.는 오히려 2개의 外國語를 요구하기도 한다. Walter C. Eells는 Ph.D.와 Ed.D.간의 차이가 없음을 실제로 작성된 論文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고 한다. 흔히 Ph.D.는 지식에 대한 독창적 공헌이 강조되지만 실제로 나타난 Ph.D.의 教育학 논문들을 보면 實驗의 연구, 應用 연구가 상당히 많다. 반면에 Ed.D.의 教育학 논문들도 상당한 理論開發에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Ph.D.나 Ed.D. 課程의 入學要件, 修學期間, 論文作成 기간이나 그 심사과정 및 기준 등이 모두 비슷하며, Ph.D.와 Ed.D.를 함께 개설하는 大學院의 경우 教育課程에도 큰 차이가 없다고 分析하고 있다.⁸⁾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學術研究學位로서의 Ph.D.와 그 외의 領域 專門博士學位간의 質的 水準의 차이는 없다고 하겠으나, 한 가지 두드러진 차이는 領域 專門學位에서는 教育 과정 이수에서 經驗的 要素(experiential component)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Ed.D.나 D.B.A.와 같은 경우, 같은 전공 분야의 Ph.D. 경우보다는 이수 학점수가 훨씬 많은 것이 미국 대부분

6) 金蘭洙·金萬圭, 大學院 教育(서울: 삼화인쇄주식회사, 1977), 19面.

7) Commission on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North Central Association, "Guidelines for Institutions Offering Advanced Degree Programs", 金蘭洙·金萬圭, 前掲書, 113面.

8) Walter C. Eells, *Op. Cit.*, pp. 32~36.

의 대학원의 경우이다. 경험적 요소의 대표적인 예로는 修習(internship), 實習(practicum), 現場 세미나(field seminar), 임상 작업(clinical work), 훈련 워크샵(training workshop) 등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Antioch 大學에서는 心理學博士(Psy.D.)라는 領域專門學位의 요건으로 모두 4년간의 과정을 요구하는 바 처음 2년 동안에는 450시간 이상, 나중 2년 동안에는 1,000시간 이상의 修習 그리고 4년 동안 계속 매주 2시간씩의 實習 세미나(professional practice seminar)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⁹⁾

이상으로 살펴본 美國 大學院에서의 典型的인 그리고 傳統的인 碩·博士學位 이외에 非傳統的인 學位의 종류를 개관하면 다음 세 가지를 더 들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文藝博士(Doctor of Arts : D. A.)이다. 이는 '67년에 Carnegie-Mellon 大學에서 처음으로 수여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博士學位이다. 이 역시 Ed.D.의 경우처럼 Ph.D.가 요구하는 요건은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한 가지 더 강조점을 추가하는데 그것은 大學에서 教授로서 가르치는 資質을 갖추도록 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생겨난 새로운 博士學位 명칭이다. 이는 지난 날의 Ph.D. 중심의 大學院 教育이 學者(scholar)를 양성하는 데는 성공적이었지만 가르치는 教授(teacher)를 양성하는 데는 失敗하였다¹⁰⁾는 自省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David Riesman 과 같은 사람은 大學院의 教育을 研究中心이나, 아니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教授中心이나로 나누어 二元論的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D.A. 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¹¹⁾ 결국은 대부분의 미국 大學院은 기존의 전통적인 Ph.D.를 선호하는 가운데 D.A. 학위제도를 환영하지 않는 형편이어서 현

제도 D.A. 학위제도는 그렇게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는 中間學位(diploma)로 불리우는 碩士學位와 博士學位 中間의 學位이다. 이는 특히 教育學 분야에서 教育專門家(education specialist)로 불리우는 학위로서 정규학위라기보다는 일종의 資格證 비슷한 非正規學位로 봄이 옳다. 대체로 博士學位(대부분의 경우 Ed.D.)까지는 해 내지 못하고 碩士學位보다는 더 많은 교과 과정을 이수했을 경우, 最終學位(terminal degree)로 수여하는 학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그러한 教育專門家 과정에 入學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는 특히 相談이나 特殊教育과 같은 분야에서 碩士學位를 소지한 사람들이 보다 심화된 特殊專門訓練이나 教科目 이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 선택하는 경우들이다.

세째는 大學院內에서의 正規課程을 통하지 않고 大學院 밖에서 그 이수가 가능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 學位를 취득할 수 있도록 門戶를 개방하는 外部學位(external degree)가 있다. 이는 특히 成人學習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成人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碩·博士學位課程이 매우 경직되어 있어 적용해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러한 外部學位制度를 통하여 Ph.D.가 수여되기 시작한 것은 '71년의 The Union Graduate School로부터이다.¹²⁾ 대체로 外部學位는 個別化 수업 체제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學習者中心의 自己指示的인 방식의 교과 과정 이수를 근간으로 이루어진다. 學位論文은 기존의 전통적인 學術的 성격의 논문이기보다는 프로젝트를 구안하며 실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그 취지는 美國 社會內에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있지만 기존의

9) Joan E. Knapp, "Assessing Experiential Learning in Graduate and Professional Education", in Frederic Jacobs and Richard J. Allen(eds.), *Expanding the Missions of Graduate and Professional Education*(San Francisco: Jossey-Bass, Inc., Pub., 1982), pp.43~61.

10) Michael J. Pelczar, Jr., "Graduate Education" in Harold E. Mitzel(ed.), *Encyclopedia of Educational Research*, 5th ed.,(New York: The Free Press, 1982), p.740.

11) David Riesman, "Thoughts on the Graduate Experience", *Change*, 8(April 1976), pp.11~16.

12) King V. Cheek, "The Union Graduate School Experience" in Association of Professors of Higher Education, *The Study of Higher Education*(Chicago: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Higher Education, 1976), pp.1~16.

전통적인 Ph.D. 옹호자들은 이러한 外部學位 제도로 양산되는 Ph.D.가 Ph.D.소유자 전체의 위신과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은 물론, Ph.D.의 質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는 경우도 많다. 이 외에도 기존의 전통적인 大學院 敎育을 통하여 양성되던 Ph.D. 학위를 다양한 非傳統的인 방식으로 양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름하여 ‘改革的인 大學院 學位課程’으로 불리우고 있는¹³⁾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양성되는 Ph.D.의 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은 과거에 Ph.D.에 대하여 사람들이 지니고 있었던 인식과 신뢰를 조금씩 흔들리게 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미국 대학원의 학위제도는 그 多樣性和 個別性으로 특징지워진다. 결코 획일적인 해석과 가치 부여는 가능하지 않다. 각 대학원마다의 독특한 時間的 理想과 水準 그리고 전통에 의거하여 그 학위의 가치와 의미가 해석되어야 한다.

4. 學位의 種類와 名稱에 관한 代案

이제 우리나라 大學院에서의 學位의 種類와 名稱에 관한 몇 가지 代案을 제시하면 그것은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1) 學位의 種類

- 學位의 종류는 現行과 같이 名譽學位와 正規學位로 二區分한다.

- 正規學位는 學術研究學位(academic research type degree)와 領域專門學位(professional type degree)로 구별한다.

- 正規學位는 水準別로 碩士와 博士로 구분하고, 그 각각의 水準에 모두 위에 제시한 학술연구 학위와 영역전문학위를 둔다.

- 名譽學位는 博士學位에 한하되, 그 명칭은 領域專門 博士學位에 국한시킨다.

이상의 네 가지 提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가 없으리라고 본다. 이미 앞에서 美

國 大學院 學位의 종류와 명칭을 살펴보면서 논의되었기에 더 이상의 논의는 생략하겠다. 한 가지만 보다 분명히 강조해 둘 것은 學術研究學位와 領域專門學位는 研究重點과 研究方法 또는 學位論文 目的에서의 차이 그 것이 결코 어떤 品格이나 質의 差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학술연구학위는 知識의 創出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領域專門學位는 知識의 應用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연구의 方法이나 학위 논문의 目的도 그것에 맞추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유형의 학위는 곧 高等教育機關, 특히 大學院의 學術的 機能을 相補的으로 충족시키는 關鍵적 요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결코 그 어느 쪽의 學位도 그 다른 한 쪽의 學位보다 ‘취득하기 쉽다’거나, 또는 ‘더 가치가 있다’든가 ‘소중하다’든가’의 사고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흔히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대학원 출신의 碩士와 전문대학원 출신의 碩士間에 質의 隔差를 인식하고 있음은 이제까지는 비록 그것이 부분적으로 참이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러한 인식이 불식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에 가서 논의하게 될 專門大學院에서 배출되는 領域專門 碩士學位의 質 強化가 시급히 요청된다 하겠다.

2) 學位의 名稱

- 學術研究 博士學位는 學問의 領域을 세 가지로 大別하고, 그에 따라 ‘人文科學博士’, ‘社會科學博士’, ‘自然科學博士’의 세 가지 명칭으로 구별한다. 단, 이들 學術研究 博士學位를 英語로 表記할 때는 모두 ‘Doctor of Philosophy (Ph.D.)’로 표기한다.

- 領域專門 博士學位는 아래와 같이 모두 37 個種의 명칭으로 구별한다. 名譽博士도 이들 명칭에 준하여 수여한다. 이 學位들을 英文으로 표기할 때는 각기 ‘Doctor of (전문분야)’ (예 : Doctor of History, Doctor of Education) 式으로 표기한다.

〈人文系〉: 語文學博士, 歷史學博士, 神學博士,

13) Learning Resources Center, Empire state College, *Innovative Graduate Programs Directory*, August. 1975(Saratoga Springs, N.Y.: Author, 1975) 참조 바람.

人類學博士, 韓國學博士, 心理學博士, 圖書館學博士, 教育學博士, 美術學博士, 音樂學博士(10種)

〈社會系〉: 經營學博士, 行政學博士, 法學博士, 政治學博士, 新聞放送學博士, 環境學博士, 外交學博士, 社會福祉學博士, 地域研究學博士, 都市開發學博士, 地域開發學博士(11種)

〈自然系〉: 工學博士, 電算學博士, 家庭學博士, 地質學博士, 統計學博士, 農林學博士, 體育學博士, 天文氣象學博士, 食品營養學博士, 水產海洋學博士(10種)

〈醫藥系〉: 醫學博士, 藥學博士, 看護學博士, 韓醫學博士, 齒醫學博士, 保健學博士(6種)

● 學術研究 碩士學位는 學術研究 博士學位에 準하여 ‘人文科學碩士’, ‘社會科學碩士’, ‘自然科學碩士’의 3種으로 구별하여 칭한다. 단, 英語로 表記할 때는 人文科學碩士와 社會科學碩士는 M.A.(Master of Arts)로, 自然科學碩士는 M.S.(Master of Science)로 표기한다.

● 領域專門 碩士學位는 아래와 같이 모두 28個種의 명칭으로 구별한다. 이學位들을 英語로 표기할 때는 각기 ‘Master of (전문분야)’(예: Master of Education, Master of Theology)式으로 표기한다.

위와 같은學位名稱의 구별은 현행의 학위 명칭에 대한 대폭적인 分化, 擴大를 의미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행의 27個種의 석사학위, 19個種의 박사학위를 각각 31個種의 석사학위와 40個種의 박사학위 명칭으로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는 우선은 學術研究學位와 領域專門學位의 학위 명칭으로 식별되어야만 한다는 원칙과 領域專門學位는 學問領域 또는 專門分野別로 세분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領域專門學位는 전문 분야의 발전에 따라 계속 分化되고 확장될 수 있으나 學術研究學位만은 그대로 항상 維持될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學位의 명칭은 국제적으로 對等性을 지니며 信賴性을 확보하여야 하겠기에 그 英文表記는 美國의 英語表記式 학위 명칭에 준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英語 이외의 他外國語로 번역 표기할 때는 그 言語使用國의 학위 명칭에 부합되게 번역될 수도 있을

것이다.

3)學位 授與機關의 類型化

● 學術研究學位는 碩士學位 및 博士學位 모두 一般大學院에서만 수여하도록 한다.

● 領域專門學位의 경우 博士學位는 원칙적으로 一般大學院, 碩士學位는 專門大學院에서 수여하도록 한다.

이 두 가지 提案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前提 아래 구상되었다. 첫째로 博士學位는 그것이 學術研究學位이든 領域專門學位이든간에 해당 專攻分野의 專任教授가 상당수 확보되어 있을 때 그 教育이 가능하리라는 전제이다. 현재와 같은 專門大學院 체제에는 專任教授가 확보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 대부분의 教授들이 전문대학원에서의 教育과 研究指導의 負擔을 추가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그렇게 대우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博士學位課程을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앞으로는 專門大學院이 독자적으로 전임 교수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인 바 그렇게 될 경우 領域專門學位로서의 박사학위 과정을 專門大學院에서도 개설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컨대 이미 상당수의 專任教授를 확보하고 있는 서울 行政大學院과 같은 경우에는 領域專門學位로서의 博士課程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로 一般大學院에서는 大學院의 사정에 따라 또는 그 大學院의 教育目的에 따라 그리고 學問分野에 따라 學術研究學位로서의 박사과정과 領域專門學位로서의 박사과정을 동시에 또는 두 가지 중 그 어느 한 쪽만을 선택적으로 개설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로 碩士學位가 學術研究學位이든 領域專門學位이든간에 관계 없이 모든 碩士學位는 어떠한 유형의 博士課程으로든 차별 대우를 받음이 없이 진학할 수 있도록 博士課程의 門戶가 개방되어야 한다. 예컨대 지난 날 일부 일반대학원의 박사과정에서 전문대학원 출신의 석사학위 소지자들에게 入學의 機會를 다소 제한하려는 듯한 인상을 불러일으켰음은 앞으로 완전히 불식 해소되어야 바람직하리라고 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領域專門學位로의 석사학위 소지자가 學術研究學位의 박

사과정으로 그리고 學術研究 석사학위 소지자가 領域專門 박사학위 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는 통로가 상호 개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教育課程의 調整

• 學術研究 博士學位와 領域專門 博士學位 課程 모두의 경우 最低履修 學點數는 碩士學位 課程時의 學點數를 포함, 최저 80 學點 水準으로 上向 調整되어야 한다.

• 學術研究 博士學位와 領域專門 博士學位 課程 모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入學要件, 資格試驗, 綜合試驗, 論文의 作成 및 審査節次는 공히 같은 수준에서 그 質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 領域專門 博士學位 課程에서는 該當專門分野에서의 一定期間 이상의 從事經驗을 入學要件 또는 學位取得要件의 한 가지로 설정하여야 한다.

• 領域專門 碩士學位 및 博士學位 課程에서는 專門分野에서의 理論과 實際의 統整을 기할 수 있는 教育課程 經驗을 겪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근본적으로 석사학위든 박사학위든 學位의 質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學位取得을 위한 教育課程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위에 제시한 네 가지 提案은 바로 學位의 質的 向上을 제고하기 위한 바램에서 기인한 것이다. 첫째는 학술연구학위든, 영역전문학위든 서로 간에 질적 격차가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각 대학원간의 질적 차이로 인해 유발되는 學位의 질적 격차는 막을 수 없겠으나, 학술연구학위와 영역전문학위가 제도 그 자체로 이미 질적 격차를 초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자칫 그릇된 인식과 차별된 제도적 허물로 인하여 영역전문학위든 학술연구학위든 그 어느 한 쪽이 학위의 남발 또는 제조 공장(degree mill)으로 전락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는 外國의 경우를 볼 때 현행 우리나라 大學院의 박사

과정 이수 학점수는 매우 적은 편에 속한다. 석사과정 이후 대체로 36 학점, 1 과목 3 학점을 기준으로 할 때 불과 12 과목인데 그것도 專攻, 副專攻으로 가르다 보면 기실이지 자기 전공 분야 안에서의 특정한 主題나 領域에 대한 깊이 있는 그리고 폭 넓고 심오한 研究를 하기가 어렵다. 세계로 위의 제안들 밑에 깔린 또 다른 전제는 영역전문학위는 그 학위 본래 취지대로의 應用研究와 現場經驗이 반드시 강조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과목 이수를 대폭 줄이고 그러한 현장 경험 교육으로 대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장 경험이나 그에 준하는 교육 과정 경험은 반드시 追加要件으로 설정됨이 바람직하다.

5) 碩士學位와 博士學位간의 中間學位

• 領域專門 碩士學位와 領域專門 博士學位간의 中間學位로서 새로운 學位를 설정한다.

• 이 中間學位는 일종의 最終學位(terminal degree)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領域專門 博士學位課程만을 이수하고 學位論문을 작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수여될 수 있다.

• 또는 이 中間學位는 領域專門 碩士學位 이후의 上級課程으로서 처음부터 최종 학위로 그 中間學位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개설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中間學位를 위한 최저 이수 학점수는 碩士課程의 學點數를 포함 50 學點 내외로 함이 바람직하다.

• 中間學位는 領域專門 碩士學位 명칭에 준하여 학위 명칭의 종류를 구분하되 그 칭호는 별도로 부여한다. 예컨대 賢士 또는 專門士와 같은 칭호를 붙여, 이를테면 教育學賢士(또는 教育學專門士), 經營學賢士(또는 經營學專門士)라고 할 수도 있다.¹⁴⁾

중간학위를 제안하는 까닭은 근본적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심오한 연구의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서 석사학위 이후의 추후 補習研究와 學習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教育機會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

14) 李相沃과 閔東必은 「大學院 學位制度에 關한 研究」(서울: 서울대학교, 1981)에서 '修士', '專門士'와 같은 호칭을 중간학위의 호칭으로 제시하고 있다.

라 불필요하게 장기간에 걸쳐 영역전문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중도에 그만두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 동안의 교과 과정 이수를 인정해 주는 사회적 補償體制의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간학위의 과정이 질적으로 느슨해져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碩·博士學位의 質이 學術社會의 正義와 倫理의 보루라면, 中間學位 역시 그러한 보루 형성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 질적 수준이 보장되고 강화되어야만 할 것이다.

5. 結 言

흔히들 博士學位는 學術社會 또는 大學으로 통하는 운전 면허증 혹은 여권이라는 냉소적 표현이 만연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碩士學位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博士學位가 과잉 공급되고 있음을 우려한다. 美國의 경우 그러한 냉소적 표현과 우려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이 사실이다.¹⁵⁾ 뿐만 아니라 博士學位에 대한 信賴 문제와 더불어 大學의 교수로 채용되는 데에 있어서 博士學位 要件은 폐지되어야 하며, 敎授職은 그가 어떠한 종류와 수준의 學位를 갖고 있건 그가 소유하고 있는 능력으로 판정되어 충당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기도 하였다.¹⁶⁾ 이러한 美國 大學社會에서의 계속되는 주장들은 한마디로 그 동안 碩·博士學位의 質이 眞正하게 지녀왔던 고결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제 그러한 類의 문제 제기는 韓國의 大

學院과 學術社會에서도 쉽게 제기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만큼 한국 대학원 學位課程의 질적 수준을 自省해 볼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하겠다.

어떠한 명분과 방법으로든 大學院에서 수여하는 學位의 質은 보장되어야 한다. 학위의 질을 향상하고 보장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그것의 한 가지가 바로 本篇에서 논의한 學位의 種類와 名稱을 재검토하여 調整하고 學位體系의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일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 大學院에서 수여하는 學位에 대한 국제 학술 사회의 신뢰를 드높이고 學術社會의 국제 경쟁 체제에서 先導力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종래에 만연되어 왔던 外國學位, 外國에서 취득한 學位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와 존경, 그에 따른 국내에서 취득한 學位에 대한 평가 절하와 같은 맹목적인 인식은 더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國內博士' 나 '外國博士' 나 하는 용어 자체가 지극히 무의미하고 물가치하거늘 그 어느 한 쪽에 대한 일방적인 선호와 가치 부여는 學術社會에서 더이상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다. 해방 이후 한국의 大學院은 그 畵에 있어서는 물론 質에 있어서도 현저한 成就와 發展을 이룩하였다. 이제 앞으로의 發展課業은 그 水準을 세계적인 무대로 끌어올려 세계적인 文化創造과 知識創出의 核心先導勢力으로서 힘을 구비하는 일일 것이다. 本篇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代案들은 筆者의 管見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代案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보다 나은 合理的인 發展方案을 모색하는 일에 하나의 좋은 資料로 活用될 수 있기를 바란다. *

15) Verne A. Stadtman, *Academic Adaptations: Higher Education Preparing for the 1980s and 1990s* (San Francisco: Jossey-Bass, Inc., Pub., 1980), pp. 189~191.

16) Alexander M. Mood, *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73), p. 89.